

신안 섬 인근 300t 이상 운항 제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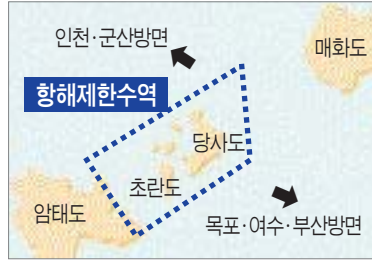
해운업계 “우회 운항으로 물류비 대폭 늘어나” 목포항만청 “항로 좁고 사고 잦아 제한 불가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해월 송전탑 절단에 이어 최근 유조선 충돌 사고가 발생한 신안 면도 수역에 대해 총톤수 300t 이상의 대형 선박 통항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 증도와 자은도 사이에 위치해 있는 면도 수역은 인천과 부산, 광양항 등을 오가는 선박의 최단 거리 항로로 유조선과 화물선 등 연간 1천750여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항로 폭이 협소하고 인근에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데다 한국전력의 송전선까지 설치돼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다.

특히 2006년 8월 신안 섬 지역 전기를 공급하는 높이 29m 고압 송전선로(6만 6천kV)가 지나던 바



지선 크레인이 잘리면서 안좌, 비금, 도초 등 9개 섬 1만5천여 가구의 전기공급이 장기간 중단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2일 밤에는 유조선 499t 여명 7호와 모래채취선 1천627t 금호 5호가 충돌, 여명호 선체

가 파손되면서 실려있던 벵커 C유 2kℓ가 유출돼 증도 우전 해수욕장을 비롯해 자은도 등 인근 섬 지역이 크게 오염돼 현재까지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항만청은 14일 전문가와 도선사, 선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부터 300t 이상 선박 통항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항만청의 대형 선박 통항 제한 방침에 관련 업계는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면도 수역에 대한 통항 제한이 이뤄질 경우 운송 거리가 20마일 이상 늘어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또 부선을 끌고 가는 예인선은 4시간, 일반 선박은 2시간 정도 더 걸려 신속한 화물 운송에도 제약을 받게 됐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관련 업계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lee@



나주 햇배 수확 한창

배 주산지인 나주시 봉황면 한 농가에서 조생종 배 수확이 한창이다. 나주 배는 올해 착과율이 높은데다 냉해를 입지 않아 대풍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 해수욕장에 대합실 설치해 주오”

버스 12회 왕복 불구 편의시설 없어 폭염속 피서객 불편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매년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으나 고속버스 대합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는 금호고속이 운행하는 광주~신지, 목포~신지간 고속버스편이 하루 12회 왕복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매표소만 주차장 입구에 설치돼 있을 뿐 버스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대합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짐통 더위 속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버스회사측은 “명사십리해수욕장이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국

립공원 지구여서 대합실 등 각종 승객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피서철 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이동식 대합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지난 2005년 12월 신지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매년 피서객이 늘고 있으며 올 들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시·군에서 건축물 대장 변경 대행해 드립니다”

전남도 '등기축적 서비스' 실시 ... 시간·비용 절약 기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할 경우 앞으로 등기소에 가지 않고 시·군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장·군수가 관할 등기소에 민원인의 건축물 대장 관련 등기를 축적(대행)하도록 하는 '건축물 등기축적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바꾸려면 건담 5만~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해 왔다.

그러나 '건축물 등기축적제'가 시행되면 건담 등록세 3천600원, 등기 수수료(수입증지 2천원)만 민원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은 관할 자치단체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등기를 축적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해 처리결과까지 알려준다. 이 서비스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멸실 등의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건축물 신규등록(신축)은 제외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매년 전남지역에서만 대령수수료 약 3억원 가량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승욱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등기소 방문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절약돼 민원인들이 큰 부담없이 변경내용을 바꿀 수 있어 건축물 대장과 법원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순천만 갈대로 '차·와인' 만든다

순천시시 갈대로 차와 음료, 와인 등을 만드는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한다.

순천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15억원을 지원받는 등 30여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1년까지 갈대를 이용한 차와 음료, 와인 등을 만드는 가공공장 신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내년에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다.

신 선수는 “최근 갈대 뿌리가 치매 치료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개발로 인지도가 높아져 차와 음료, 와인 시장 진출이 무난할 것”이라며 “갈대 상품의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마케팅 활성화와 관료 개척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남도예술은행, 토요일매 경품 이벤트

전남도 남도예술은행이 토요일매 2주년을 맞아 시가 대비 최고 70% 할인된 가격으로 미술품 경매와 특별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오는 16일과 23일, 30일 등 3차례에 걸쳐 진도 운림산방에서 판매수입 1억원 돌파 기념 할인경매와 일부 작품 균일가 경매, 도립 국악단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고 12일 밝혔다.

경매작품은 한국화, 서예, 문인화 등 모두 40여점으로 시중 가격보다 최고 70% 할인된 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되며 일부 작품은 5만원 균일가로 책정됐다.

공식경매와는 별도로 지역 유명인사의 소장품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특별경매도 실시되며 수입금은 미술인 창작지원 등으로 기부된다. /재희종기자 chae@

“바닷길 열려 산길 걷는 고생 끝났어요”

여수해경, 운항 장비 보강 도선장 이전

남면 대부도 노인들 평생 숙원 풀어

여수해경정찰서가 산길을 걸어 다녀야 했던 섬 마을 노인들에게 바닷길을 열었다.

여수시 남면 대부도 주민들은 안도리에 있는 보건소와 금융기관, 생활용품 판매점을 이용하기 위해 5분간 도선을 타고 서고지 선착장에 도착한 뒤 산길 2km를 걸어야 하는 불편을 수십년 동안 겪어 왔다.

현재 대부도 주민 13명의 평균

연령은 73세. 주민들은 아픈 무릎과 허리를 붙잡고 1주일에 3~4차례 말 그대로 '산넘고 물건너' 자녀가 은행 계좌로 보내준 돈을 찾고, 진료를 받고, 생활품을 구입하고 있다.

대부도 주민들이 산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도에서 서고지 선착장을 오가는 도선인 부도호(3.94t)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연해구역'인 서고지 선착

장에서 안도항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수해경은 대부도 주민들의 이같은 고충을 덜기 위해 여수시로부터 292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부도호가 연해구역을 운항할 수 있도록 레이저 반사기와 선박 조난 위치 자동발신장치 등 장비를 보강해줬다.

이에 따라 부도호는 오는 13일부터 서고지 선착장에서 안도항을 운항할 수 있게 됐고, 주민들도 1시간 동안 산길을 걷지 않아도 안도리에 있는 보건소와 금융기관, 생활용품 판매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역대 대통령 휘호 새긴 청자 팝니다”

청자문화제 기념,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 작품 등

강진 청자박물관이 역대 대통령들의 휘호가 새겨진 청자(사진)를 특별 판매한다.

이번 특별 판매전은 강진청자박물관이 새롭게 시도한 것으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 13회 청자문화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자촌 명품관에서 열리고 있는 판매전은 국보 재현품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에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천애인'(敬天愛人) 작품 1점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랑과 봉사' 휘호 작품 10점이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천애인 애민애己'(敬天愛人 愛隣愛己) 휘호 작품 10점 등 모두 21점이다. 45~50cm 크기의 청자 매병에 휘호를 탁본, 전통 상감기법을 이용



해 수작업으로 제작했으며 가격은 100만~1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윤순화 강진청자박물관장은 “청자문화제를 기념해 청자에 덕망있는 대통령의 글씨를 넣어 그 의미를 되새겼다”며 “작품 회소성

이 큰 만큼 소장가치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7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강진청자문화제는 청자촌 일대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담양 죽순요리 책자 발간

담양군이 죽순을 활용한 각종 요리가 수록된 죽순요리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담양군이 남도대학 지역혁신특성화사업단과 함께 개발한 다양한 죽순요리들이 소개돼 있다. 특히 대나무 및 죽순을 활용한 전통 발효음식, 약선요리 등 20여가지의 죽순요리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담양군은 이 책자를 한정식 식당, 관광지주변 대형 음식점에 나눠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담양만의 다양한 죽순요리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보성 녹차생엽 첫 수매

동원 F&B 생·건엽 200t

보성군이 200여곳의 소규모 차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녹차공급체인 ㈜동원F&B의 협조를 얻어 생엽(生葉) 160t과 건엽(乾葉) 40t 등을 수매하기로 했다.

녹차생엽이 수매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매는 보성녹차영농조합법인 등 2개 업체를 통해 이뤄지며 내년도 녹차음료 가공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된 뒤 ㈜동원F&B에 납품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 수매는 녹차의 품질을 높이고 소규모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역수는 시가 3억원 정도에 그리 크지 않지만 수매를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곡성에서 광복절 기념 '독도 사진전'

10월말까지 기차마을·섬진강문화화교

곡성에서 광복 63주년을 기념한 독도사진전이 열린다.

11일 곡성군에 따르면 광복 6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민족의 섬 독도 사진전'이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섬진강문화화교와 오곡면 오지리 섬진강기차마을 등 2곳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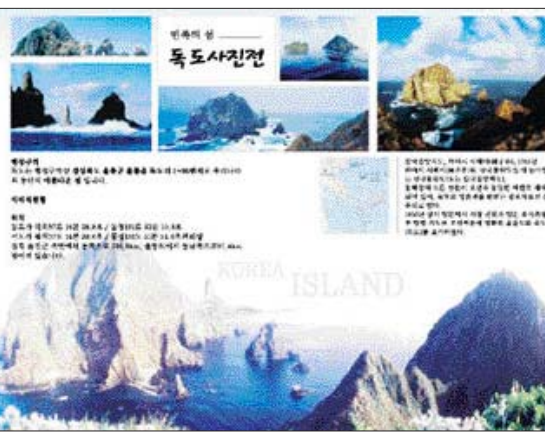
곡성군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독도전문 사진작가 김중권(56)씨의 작품 120여점이 선보인다.

독도의 사계절을 비롯, 독도의 전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진 등 일반인들로서는 좀처럼 찍기도 어렵고 구경하기도 어려운 작품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독도를 볼 수 없다는 일본측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사진도 전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섬진강문화화교에서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등 2곳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김씨는 “최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광복절



을 맞아 후손들에게 독도사랑의 마음과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곡성군이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섬진강문화화교를 지난해부터 임대받아 독도사진을 비롯해 각종 사진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브리티시 여왕’ 신지에 함평서 환영행사

모교 찾아 장학금 전달, 후배들 퍼팅 지도도

함평골프교(교장 이회관) 출신으로 최근 LPGA 브리티시오픈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신지에(20·하이마트) 선수 환영행사가 12일 함평에서 열렸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신 선수의 브리티시 오픈 우승을 축하하고 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쾌거를 기념하기 위해 환영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있을 LPGA 투어에서도 신 선수의 승

받았다.

또 모교인 함평골프교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후배들에게 퍼팅과 칩샷 등을 지도했다.

신 선수는 “함평군에 올 때마다 뜨겁게 환영해주고 고맙다”면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다른 프로 선수들에게 함평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신 선수는 영광 흥농초등학교 5학년때 골프를 시작한 뒤 흥농중을 거쳐 함평골프교를 졸업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장구해 세계적인 선수로 우뚝 서고 아울러 함평골프교가 최고의 골프 명문으로 도약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